

12·16대책 효과 본격화...강남3구 아파트값 7개월여 만에 하락

기사입력 2020-01-23 14:00 최종수정 2020-01-23 15:20

한국감정원 조사...재건축 이어 일반아파트도 급매물 늘어 약세

전세대출 규제로 강남 '반전세' 전환 움직임도



서울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[연합뉴스 자료사진]

(서울=연합뉴스) 서미숙 기자 = 서울 강남 3구 아파트값이 지난해 6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전환했다. 12·16대책 이후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와 보유세 강화 효과로 보인다.

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조사 기준 강남·서초·송파구 등 강남 3구 아파트값이 각각 0.01~0.02% 떨어지면서 하락 전환했다.

강남 3구 아파트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해 5월 말~6월 초순 이후 7개월여 만에 처음이다.

12·16대책 발표 이후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억원씩 내린 급매물이 나운데 이어 일반 아파트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기간 내 팔려는 일부 급매물이 나오면서 호가가 내려간 곳들이 많다.

감정원 조사 기준으로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, 대치동 은마아파트, 서초구 반포 래미안퍼스티지, 반

포 리체,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, 엘스, 리센츠, 파크리오 등 주요 아파트 단지에서 급매물이 나오면서 시세가 내려갔다.

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전용면적 76㎡는 대책 발표 전보다 3억원 이상 빠진 18억8천만원짜리 매물도 나오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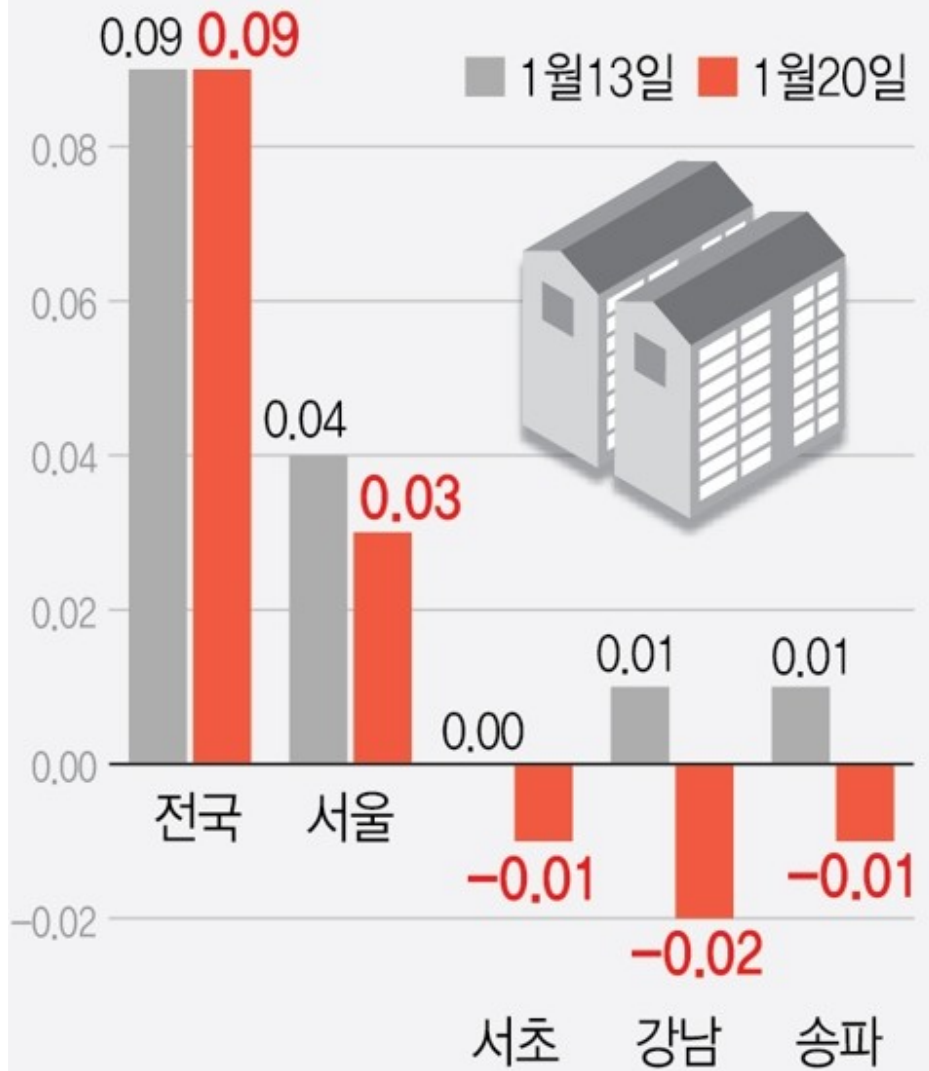
강동구는 0.03% 올랐으나 지난주(0.04%)보다 오름폭은 줄었다.

나머지 구는 대부분 지난주와 오름폭이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둔화한 모습이다.

서울 전체적으로는 지난주 대비 0.03% 올라 5주 연속 오름폭이 둔화했다.

경기도의 아파트값은 0.19%로 지난주(0.18%)보다 상승폭이 커졌다.

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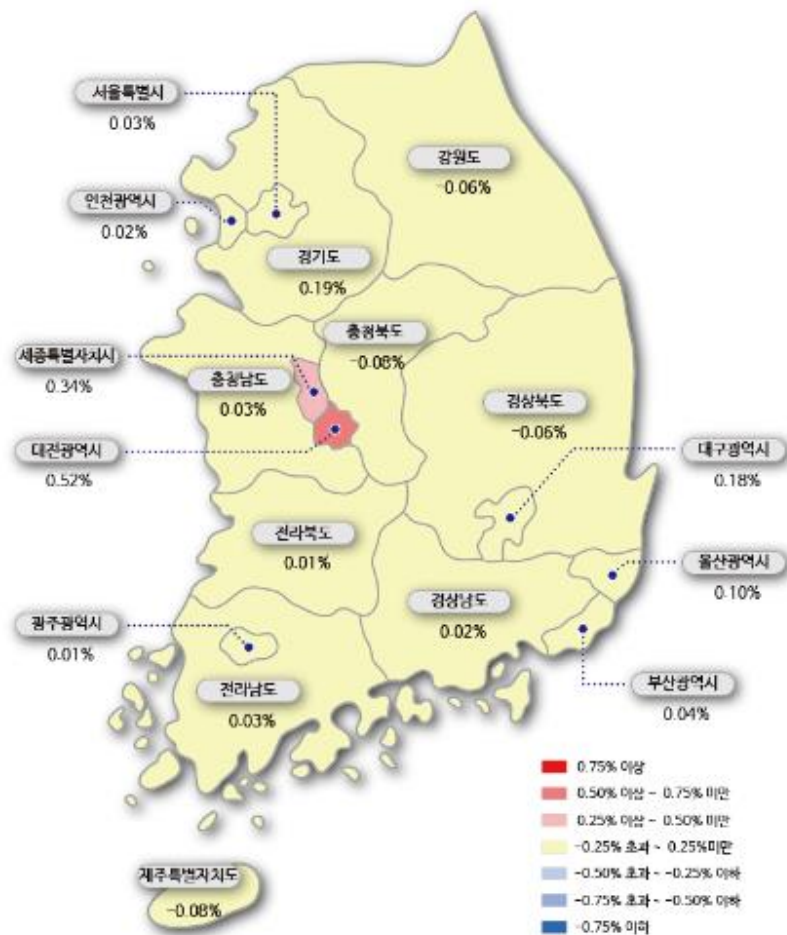


자료/ 한국감정원



박영석 기자 / 20200123

트위터 @yonhap_graphics, 페이스북 tuneey.kr/LeYN1



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[한국감정원 제공]

2주 전 보합에서 지난주 0.13% 올랐던 과천시에는 금주 들어 0.02% 하락하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고 있다.

수원 팔달구(0.78%)와 용인 수지(0.65%), 용인 기흥(0.50%) 등은 저가 주택 매입 수요가 몰리면서 강세가 지속됐고 하남시와 고양시도 각각 0.17%, 0.07%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낙폭이 확대됐다.

지방에서는 대전(0.52%)과 대구(0.18%)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고, 세종시도 0.34% 오르면서 지난주(0.14%)보다 오름폭이 커졌다.

대전시 유성구(0.73%)는 전민동과 계산동 등 그동안 상승폭이 낮았던 단지 중심으로, 서구(0.49%)는 둔산동과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탄방·월평동 등지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.

전셋값은 서울이 0.10%로 지난주(0.11%)보다 오름폭이 소폭 둔화했으나 경기도가 0.17%, 지방이 0.08% 오르면서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.

서울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나 매수자의 전세자금 대출이 금지되면서 주로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전세를 얻는 강남·서초구(각 0.15%)의 전셋값 오름폭이 지난주보다 둔화했다.

전세자금 대출을 못 받거나 만기 연장이 불가능한 일부 세입자들은 반전세 등으로 돌아서는 모습

도 감지되고 있다.

수도권에서는 과천시와 광명시의 전셋값이 보합 전환했다.



강남3구 아파트값 7개월여만에 하락 (CG)[연합뉴스TV 제공]

sms@yna.co.kr

▶확 달라진 연합뉴스 웹을 만나보세요

▶네이버 [연합뉴스] 채널 구독 ▶뭐 하고 놀까? #흥

이 기사 주소 <https://news.naver.com/main/read.nhn?mode=LPOD&mid=etc&oid=001&aid=0011354812>
